

팔도라면 나주시 본격 생산한다

460억원 투입 5개 생산라인 갖춰 ... 지역 인력 143명채용

라면업계의 새로운 강자 (주) 팔도가 나주에 공장을 완공,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팔도 나주공장은 30일 나주 일반산단에서 팔도 최재문 대표이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임성훈 나주시장, 팔도 임직원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총 460억원을 투입해 3만3000㎡(1만평) 부지에 2만2900㎡(7000평)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 나주공장은 5개 생산라인(면생산 4·스프링 생산 1)을 갖추고 있다.

팔도 나주공장에서는 도시락 라면과 왕뚜껍 라면을 생산하게 되며, 도시락라면은 콩고과 미주 지역으로 전량 수출할 예정이다.

팔도는 지난해 7월 닭육수를 소재로 한 '꼬꼬면'을 히트시키며 라면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야쿠르트 는 '꼬꼬면' 히트에 힘입어 올해 1월



박준영 도지사가 30일 나주시 운곡동 일반 산업단지에서 열린 팔도라면 준공식에 참석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팔도'를 독립·분리하고, 라면시장 공략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나주공장을 '면 생산 전진기지'로 삼아 국내외에서 글로벌 라면시장으로 위상을 굳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팔도는 나주공장서 월 2300만개의 면과 4600만개의 스프를 생산

해 연간 600억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팔도는 공장가동을 위해 143명의 지역 인력을 채용하고 향후 추가 증설을 통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팔도 최재문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나주공장 준공을 위해 힘써주신

남도와 나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팔도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축사에서 "팔도라면 나주에 몰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에 시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소를 개소해서 우수한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고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며 "(주)팔도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좋은 인력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는 팔도의 연착륙을 위해 연간 임대료 1억2700만원 2회 분할 납부 허용과 투자유치 보조금(입지·시설 등) 및 분사 전입직원 16명에게 전세비 2000만원(2세대 가족동반 전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참깨를 수확하며...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들녘에서 한 주민이 이른 봄에 피종한 참깨 새싹을 수확하고 있다. 참깨는 종자가 가볍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손이나 기계로 뿌리면 종자가 몰려 밭이한 싹을 수해야 한다. <담양군 제공>

상무대 장병들 장성쌀 먹는다

이전 18년만에 郡·軍 상생협력 결실 年 6000포 ... 채소·육류 등 확대 계획

장성군과 상무대의 상생협력의 결실을 맺었다.

상무대 근무지원단과 장성군 농업 통합RPC는 최근 장성 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상무대 5개 학교 등 총 6개소에 쌀을 본격 공급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원농협RPC는 '365생 프리미엄 쌀'을 상무대 보병·공병·포병·기계화·화확학교와 근무지원단이 직영하는 상무아파트내 식당에 공급할 예정이다.

상무대의 미국 소요량은 1월 25포(20kg)로 연간 최소 6000포(120t) 이상에 달한다.

그동안 상무대는 장성 쌀을 군에서 협조 요청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군과 상무대가 지난 2011년 3월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해 상생의 물꼬를 튼데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장성군은 지역내 농산물 공급을 배추, 무 등 채소와 육류 등으로 확대 추진하고, 장병들의 후식으로 장성산 과일을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무대 이전 이후 18년만에 최초로 장성군의 농산물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이 상무대라는 상당한 규모의 안정적 판로를 갖게 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훈기자 yongho@

나주시, 수도권 8개 업체와 713억 투자협약

나주시는 지난 29일 수도권 지역 8개 업체와 투자규모 713억원, 고용 예상인원 900여명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민간 자본으로 조성중인 미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협약 체결에 이어 수도권 기업,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관된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가졌다.

협약 체결업체는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웨이브텔레

텍을 비롯해 산업용 PDA 제조업체인 ㈜비컴퓨먼텍,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제이시스템 등이다.

또 국내 최대 휴대전화 콜센터 운영업체인 ㈜에스엔제이도 나주에 새 동지를 든다.

이들 기업은 2015년까지 공장건립 등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은 봉황과 왕곡일대 178만㎡에 고건산업 개발이 토지보상과 조성비 등 240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전남도 '원예종묘 품질인증제' 도입

'나크투인보우'와 업무협약

전남도가 국제 수준의 '원예종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내 원예종묘의 품질인증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네덜란드 '나크투인보우'(Naktuinbouw)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최초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기술이전을 받게 되면 전남도는 딸기와 장미·국화·파수·고구마 등 영양 번식체 작물의

종묘 품질을 국제수준까지 높여 원예종묘 사업을 수출 성장 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나크투인보우'는 1941년 네덜란드 정부기관으로 설립, 2000년에 민간회사로 이관돼 현재 유럽연합(EU)에서 딸기, 장미, 국화 등 신품종에 관련된 원예종묘 생산과정에서 증식에 사용되는 종묘의 품질과 등급 등 '건전성 보증'(plant passport)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 북

익산 원형·부안유통새영농조합

52억 투입 현대화 시설 갖춘다

APC 지원대상 선정

전북 도내 2개 생산자 단체가 2013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16억원 국비를 포함해 52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번 설치대상 2개소는 익산탑마루조합 공동법인의 익산 원형과 부안 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부안유통새영농 조합법인이다.

이번 선정된 법인에는 집하장·선별장·포장장 등 건물 4242㎡이 건립되고, 기계·장비 10종이 지원된다.

이들 법인은 운영이 본격 시작되는 2013년도에는 고구마·배·토마토·수

박·양파 등 3만1921t(361억원)의 신선 농산물을 e마트와 도매시장, 양재물류센터,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주산지 특성에 맞는 집하·선별장·저온저장고, 포장장 등 유통시설 확충을 통해 산지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016년까지 1시·군 1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시·군 유통회사) 중심으로 도내 29개소의 산지유통 센터중 시설이 노후한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전북산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김제시, '최대 저수지 유적' 발굴조사 관광자원 활용

김제시가 우리나라 최대 저수지 유적인 벽골제 발굴조사를 통해 성격을 규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물론 나아가 일본과 공동으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벽골제 원형보존과 발굴을 위해 지난 2006년에 벽골제 장기종합 발굴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지정 구역을 확대(30만3843㎡)하고 오는 2018년 까지 단계별로 발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적으로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

다. 시와 전북문화재연구원은 지난 3월 개토제를 시작으로 발굴조사에 착수해 지난 29일 현장에서 벽골제 조사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를 가졌다.

발굴 결과 벽골제 중심기(수문)는 먼저 제방을 축조하고 이를 되파서 시설했고, 지난 1975년에 발굴한 장생거나 경장거와 같은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방 최하단에는 식물부재를 깔고 있는 일명 '부엽공법'이 확인됐고, 흙덩이와 점토, 인근 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적갈색 토사를 이용하

고 있다.

이러한 축조공법은 우리나라 토목공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일본 오사카의 '사야마이케'(狭山池) 제방의 원형을 찾을 수 있어 고대 한·일 문화교류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00여년전 축조된 '사야마이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개용 저수지이다.

이건식 시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발굴 복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단 신

군산 시립예술단 합동 야외연주회

군산 시립예술단(합창단·교향악단)은 오는 6월 2일 은파호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합동 야외연주회를 개최한다.

가수 이상우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연주회는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영화음악 '사운드 오브 뮤직', '라밤바', '페임'(Fame) 등 익숙하고 대중적인 음악을 선

보인다. 퓨전재즈와 라틴댄스 등에 안무를 가미해 단순히 듣기만 하는 연주회가 아닌 보고, 듣고, 함께 리듬을 타며 즐기는 흥겨운 야외 연주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 시립합창단과 CBS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희기자 nogusu@

'제3회 익산 시민 창조소쿨' 개강식

익산시는 30일 익산 유스호스텔 회관에서 '제3회 익산 시민 창조소쿨' 개강식을 가졌다.

익산시의 희망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창조소쿨은 시민들의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시민, 행정,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팀을 구성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보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이다. 이번 창조소쿨에는 9개 팀이 참가신청을 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7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참가팀들은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만들어 한달후 최종발표회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 '남문로 보행환경사업' 5억 지원 받아

남원시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시장 4가에서 금동아파트 입구까지 총길이 240m구간에 폭

2m의 보도를 설치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우·오수 관로를 분리식으로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이번 수상한 5억원을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고창 복분자연구소, 식품정보원과 MOU

(재)고창 복분자연구소는 최근 대전에서 (주)한국식품정보원(원장 이상호)과 향후 복분자 식품시장 및 연구정보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복분자 식품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자문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종태 연구소장은 "앞으로 연구인력과 유통업체, 한국식품정보원의 시장 분석 전문가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고창의 복분자 산업 육성 목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시의회 찾아가는 의정활동 활발

경로대학서 특강

정읍시의회가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지난 29일 초대교회 경로대학의 초청으로 경로대학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장 위원장은 ▲행정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의원 의무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들이 알기 쉽게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장학수 의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개교 14년째를 맞은 초대교회 경로 대학은 매주 145명씩 연간 700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글반·스포츠크스 등 10개 학과로 편성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갑기자 parkks@



"사료작물 섞어 재배하세요"

순창군은 최근 팔덕면 용산리 단지에서 축산 전업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작물 혼파 재배 평가회를 가졌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